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2012년 7월 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료문의 : 유법민 투자유치과장(02-2110-5361), 박성우 사무관(5363), 김시덕 주무관(5362)

'1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(FDI) 사상 최대

◇ FDI 신고 71.1억불, 도착 44.5억불, 상반기 FDI로 사상 최대치 기록
◇ 일본의 對韓투자 급증(196%↑)

1. 전반적인 동향

□ **(실적)** '12년 상반기 FDI(신고기준)는 전년동기(53.7억불) 대비 32.5% 증가한 71.1억불로,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기록

○ 도착금액(잠정)도 전년동기 대비 53.7% 증가한 44.5억불

□ **(특징)** 일본의 對韓투자 급증,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 증가

○ **(국가별)** 일본(196%↑)·미국(13.1%↑)은 투자 증가, EU(31.6%↓)는 감소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 대폭 증가(56%↑), 서비스업도 증가(34.8%↑)

* **제조업** ('11) 22.3억불 → ('12) 34.8억불, **서비스업** ('11) 26.5억불 → ('12) 35.7억불

<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 추이 >

(백만불, 전년동기대비 %)

지 역	'08.상반기	'09.상반기	'10.상반기	'11.상반기	'12.상반기
전체 (증감률)	4,548 (35.0)	4,644 (2.1)	4,333 (−6.7)	5,364 (23.8)	7,106 (32.5)
미국	694 (107.3)	605 (−12.8)	389 (−35.8)	1,111 (186.0)	1,257 (13.1)
일본	645 (123.8)	1,178 (82.9)	621 (−47.3)	891 (43.6)	2,637 (195.9)
EU	2,148 (34.2)	1,800 (−16.2)	1,407 (−21.8)	2,048 (45.6)	1,401 (−31.6)
중화권	560 (35.3)	870 (55.5)	354 (−59.3)	677 (91.2)	1,247 (84.1)
중국	23 (−46.9)	31 (37.2)	65 (108.7)	228 (250.9)	187 (−17.8)
기타	501	191	1,562	637	564

□ **(평가)**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다른 국가의 실적과 비교할 때 30%이상 증가는 양호한 수준

< 최근 주요 국가의 FDI 유치 동향 (전년동기 대비) >

국가	미국('12.1-3월)	독일('12.1-3월)	중국('12.1-4월)	싱가폴('12.1-3월)	말련('12.1-3월)
증감률	−16.8%	13.9%	−2.4%	5.6%	−33.7%

* 출처 : 각 국의 FDI발표 통계 자료(순유입 기준)

□ **(주요 요인)**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추세, FTA 효과, 상반기 집중IR 개최 등이 FDI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

① **(일본기업의 해외투자 확대)** 엔고 등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있는 일본 부품 소재기업의 對韓 투자가 크게 증가

* 일본의 해외투자 : ('11.1/4) 99.2억불 → ('12.1/4) 263억불 (165.2%↑)
* 일본의 해외투자中 對韓투자 비중 : ('11) 2.1% → ('12.1/4) 3.5%
※ 자료 출처 : JETRO 통계 (송금기준)

② **(FTA 효과)** 한-미 FTA 등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미·EU 등 거대경제권 진출 목적 투자 증가

* (英) S社, 국내 기업과 합작 투자(FDI 1.2억불), FTA의 무관세를 활용하여 생산제품의 85%를 자사의 판매망을 활용하여 해외에 판매할 계획

③ **(적극적 유치활동)** 상반기에 IR을 집중 개최하는 등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하여 FDI 증가세 가속화

* 상반기IR 개최 실적(11회) : 독일(3월/6월), 미국(4월), 일본(5월), 중국(5월), 중동(UAE, 사우디, 카타르, 3월/5월), 브라질(6월), 서울(6월), 여수(6월)

⇒ 상반기IR을 통한 투자유치 실적 : 24억불 투자유치

2. 주요 국가별 FDI 동향

1 일본 : 전년동기(891백만불)대비 195.9% 증가한 2,637백만불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*(253.2%↑) 및 서비스업(162.1%↑) 모두 대폭 증가

* 금속(860.9%↑), 화공(364.7%↑), 비금속광물(340.0%↑) 등 소재분야 대폭 확대

구분	11년 상반기	12년 상반기	증감률
일본 전체	**891**	**2,637**	**195.9**
제조업	380	1,341	253.2
화공	114	531	364.7
비금속광물	71	314	340.0
금속	11	109	860.9
기계 · 장비	64	138	116.4
전기 · 전자	84	215	155.6
서비스업	495	1,296	162.1

○ **(유형별)** M&A형(690.0%↑) 및 그린필드형(114.2%↑) 모두 대폭 증가

○ **주요 투자사례** : E社(2.6억불, 유리제품 제조), N社(1.2억불, 경영 컨설팅), Y社(7.5천만불, 철강 제조), W社(5천만불, 플라스틱 필름 제조), T社(2.6천만불, 등방성 흑연 제조) 등

2 미국 : 전년동기(1,111백만불)대비 13.1% 증가한 1,257백만불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(34.3%↑) 증가, 서비스업(8.5%↓) 감소

○ **(유형별)** M&A형(420.2%↑) 증가, 그린필드형(5.9%↓) 감소

○ **주요 투자사례** : I社(2억불, 지역개발), A社(1.5억불, 오일탱크 제조), S社(1.4억불, 방막형 태양광 패널 제조), T社(1억불, 금융서비스) 등

3 EU : 전년동기(2,048백만불)대비 31.6% 감소한 1,401백만불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(0.9%↑) 소폭 증가, 서비스업(27.8%↓) 감소

○ **(유형별)** M&A형(65.3%↑) 증가, 그린필드형(55.5%↓) 감소

○ **주요 투자사례** : E社(룩셈부르크, 1.9억불, 무역업), N社(네덜란드, 1.7억불, 아웃도어 의류), B社(독일, 5.3천만불, 자동차부품 제조), M社(영국, 5천만불, 테마파크) 등

4 기타

○ **(중국)** 전년동기(228백만불) 대비 17.8% 감소한 187백만불 투자

- 제조업(46.8%↑)은 증가하고, 서비스업(43.6%↓)은 감소하였으나, 물류·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 증가

○ **(중화권*)** 전년동기(449백만불) 대비 136% 증가한 1,059백만불 투자

* 홍콩(369%↑), 대만(186.7%↑), 싱가포르(65.2%↑), 말레이시아 등

○ **(중동)** 일반적으로 對韓 투자규모가 매우 미미, 중동 정정불안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(67백만불) 대비 91.5% 감소한 6백만불 투자

3. 하반기 전망 및 계획

□ **(하반기 전망)** 유럽재정위기 지속,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FDI 확대 지속 여부 불투명

* OECD('12.4월) : '12년 글로벌 FDI는 유럽 경제 회복지연으로 주춤 예상

○ 다만,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, 미국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 등 기회요인도 있을 전망

* 美 실질GDP 성장률 전망(World Bank) : ('11) 1.7% → ('12) 2.1% → ('13) 2.4%

□ **(향후 계획)** 투자유치 기회가 상대적으로 큰 일본·중국 등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집중

① **(일본)** 對韓 투자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부품·소재분야 투자유치활동 강화

- 국내 주력산업분야 부품소재기업 타겟팅 및 일본 주요 거점도시(동경, 오사카)에서 대규모IR, 방한초청 등 투자유치활동 전개

② **(중국)** 중국의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·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가의 관심을 이용하여 투자유치

* 중국 관광객 추이(천명) : ('07) 1,310 → ('08) 1,370 → ('09) 1,480 → ('10) 1,875 → ('11) 2,220

- 수도권·제주도 등 관심지역의 지역개발(관광·레저 등) 수요를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(홍콩·말레이시아)에 대해 투자유치

< '12년 하반기 해외투자유치활동(IR) 계획 >

시기	국가	주요 유치대상/활동내용	비 고
9월	홍콩, 말레이시아	지역개발, 금융 등	한홍콩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연계
	중국 (상해)	관광·레저, 문화콘텐츠 등	China Desk 활동
10월	일본 (동경, 오사카)	부품소재	대규모 IR 추진
	중국 (베이징)	지역개발, 신재생에너지 등	China Desk 활동
	독일 (뒤셀도르프, 슈트트가르트)	부품소재	독일 거점도시 순회 로드쇼
11월	미국	IT/BT, GT	지자체 통합 IR
	중국 (광저우)	관광·레저, 지역개발 등	China Desk 활동

※ 붙임 : 201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